

월요광장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떠오른다. 철학자였지만 디오게네스는 철학을 어려운 개념과 이론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의 일상적 행동이 곧 철학적 행위였다. 그는 안과 밖이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뚜렷했다. 디오게네스의 이런 두려움 없는 태도는 오직 탐욕 없는 삶에서만 얻어지는 자유로움이다. 소유에 대한 욕망이 클수록 삶이 '지옥'임을 잘 아는 디오게네스는 평생을 집은거녕 낱아빠진 통 속에서 한 벌의 옷과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살았지만, 천하를 호령한 알렉산더 대왕도 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았던가! 이런 디오게네스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빛을 발하는 많은 일화들을 남겼다.

끝없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는 온갖 종류의 비리와 부패로 휘청거리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거대한 '욕망의 도가니'를 생

“어디 사람 없소?” 디오게네스의 절박한 물음

각한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는 왜곡된 욕망의 덩어리들로 넘쳐나는 도가니 말이다. 욕망의 가장 큰 문제는 끝없는 자기 증식이 있다.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강력한 절대 권력을 욕망하고,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를 갖지 못해서 불안하다. 그래서 욕망의 계단 위에 이미 발을 디딘 사람은 그 계단을 제 발로 내려오지 못한다. 그러나 범법자가 범법자를 수사하는 옷지 못할 희극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지 않는가! 이런 요지경의 현실은 디오게네스가 들었던 등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디오게네스는 내낮에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아서 도시를 헤매고 다녔다. 아테네 같은 큰 도시에 사람이 없을 리 없지만 오죽했으면 내낮에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았을까? "어디 사람 없소?"하고 다녔던 그 심정이 우리가 처한 현실 앞에서 절절하게 느껴진다. 디오게네스가 찾으려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살았던 시대가 특별히 더 비도덕적이고 부패한 시대였던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오히려 더 나은 정치와 철학이 있었던 시대였다. 철학자 플라톤은 존경받을 활동을 하고 있었고 아테네는 직접 민주정치가 활발한 도시국가였다. 그럼에도 디오게네스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디오게네스가 말하는 사람의 조건은 전혀 특별하지 않다. 욕망과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람다운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그는 이런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며 정직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현명한 사람은 욕망의 실체를 알고 욕망의 지시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욕망의 충족은 디오게네스에게는 부럽기는커녕 역겨운 것이었다. 어느 날 배라부자가 된 사람이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 집으로 초대해서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자 디오게네스는 졸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둘러봐도 당신 집안은 너무나 깨끗해서 침 뱉을 곳이 당신 얼굴밖에 없구려." 현재의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위한 통로일 뿐이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게 돌아가는 욕망의 도가니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는 없다. 오직 그 도가니를 통째로 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만이 욕망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디오게네스의 등불은 바로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또한 디오게네스가 찾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디오게네스의 등불은 단순해 세상을 비웃고 풍자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등불을 든 행동에는 세상에 대한 비판과 함께

책임의식이 깊게 깔려 있다. '욕망의 도가니'의 위험을 경고하고 '사람' 없는 세상의 절망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고짜로 철저히 '비주류'의 삶을 살았지만, 디오게네스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뿌리째 버린 것은 아니었다. 사람을 찾는 것은 그 자체로서 희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필요한 단 하나의 이유는 웃음이 더 좋은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이며,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디오게네스가 든 내낮의 등불은 지금의 현실이 어둡고 부패했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어딘가에 사람다운 사람이 있다는 희망을 뜻한다. 디오게네스의 등불에서 우리에게 절실한 두 가지의 문제를 본다. 사람의 의미에 대한 실존적인 성찰과 세상에 대한 용기 있는 관심이다. 이는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으나 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디오게네스의 등불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비출 등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 등불을 자신에게 우선 비춰보는 것이 뚜렷한 삶의 조건이다. 스스로에게 등불을 비출 수 있는 용기에서 사람다운은 시작한다. 그리고 빛밖에 드러난 모습이 자신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인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어디, 사람 없소? 하고 말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법조칼럼



우 성 영
광주지검 검사

검사 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대체로 엄벌주의 성향을 갖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엄벌하고 싶은 범죄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살인·강도·강간 같은 중범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자가 있고 국민의 법감정이 범법에 전달돼 대체로 중한 형을 선고하지만, 구구절절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당장 눈앞에서 판사에게 하소연을 하지 않아서 그러한 도박의 선고형은 수사검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도 낮게 나와서 아닌가 싶다. 수년 전 전북 어느 마을 마늘밭에서 100억원 이상이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수사 결과 이 돈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었다. 필자가 중국 길림성 등지에서 활동하던 사설 스포츠로팅 사이트 운영 조직을 직접 수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계좌를 통해 확인한 수

사설도박사이트 운영자 엄벌해야 하는 이유

익이 2000억원 정도로 국내 대기업의 매출액과 맞먹는 규모였다. 흔히 말하는 잡범이라는 절도범은 평생 남의 물건을 훔쳐도 불가능할 것이고, 이정도 금액을 얻으려고 절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다가 검거되어 선고되는 형을 합산한다면 대부분의 삶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정도의 것이다. 그럼에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선고되는 형은 조금 과장하면 몇 십만 원 정도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를 3~4차례 한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식한다면 법원이 지금보다는 좀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은 중국 등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 속칭 '대포통장' 수십 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벌금이 쉽지 않다. 또 범인들 중 1명이 검거되면 다른 범인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도주하여 검거도 쉽지 않은 등 수사의 어려움이 많다. 검거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대부분 숨겨놓아 이를 환수하는 것 역시 너무도 어렵다. 이같은 범죄는 국민으로 하여금 사형성을 부추겨 결국 도박중독에 이르게 한다. 수익이 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아이디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속칭 '먹튀'를 하여 궁극적으로 도박자들의 생활고만을

안겨주게 된다. 또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는 등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양산하게 되어 있다. 도박중독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설 스포츠도도의 경우 합법적인 스포츠도도와 달리 배팅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1회 100만원 정도를 배팅할 수도 있고, 승패만을 적중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투수가 첫 번째 던진 공이 불인지 스트라이크인지 적중시키게 하거나, 축구에서 첫 번째 파울이 어느 팀에서 나올 것인지 적중시키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즉각적인 배팅을 유도함으로써 사형성을 더욱 배가시킨다. 이로 인해 요즘 한창 떠들썩한 프로스포츠 선수를 적극적으로 매수해 승부를 조작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 산업도 붕괴시킬 정도이다. 반대급부로 범죄자들이 얻는 이익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타어마하다. 필자가 수사한 경험에 의하면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수익이 생겨 고급 외제차만 12대를 산 사람이 있었고, 매일 고급 룰랄도 같은 술집에서 1000만원 정도를 너무도 쉽게 써버리는 행태였다. 또한 그 돈으로 서울에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마치 선량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었다. 수사를 하면서 참으로 부아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20년 정도 근무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 둔 이유가 중·고등학교 동창생이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면서 너무나도 호호롭게 사는 모습을 본 후 자신은 45년을 너무도 평범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이상을 잃고 그 동창생의 범행에 자신도 몸을 싣게 된 것이었다. 요즘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혼란을 틈타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같은 범행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검정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커다란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은 선량하다고 생각한다. 맘 흘려 일한 대가로 가족을 부양하고 그럼으로써 부끄럽지 않은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앞서 말한 회사원과 같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같은 범죄에 대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이같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반인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기 고



박 중 렬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교수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인 부시를 누르고 대통령이 되었다. 오늘 필자는 우리에게 “문제는 안보야, 바보야!”라는 화두를 던진다. 현재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 ‘우리의 안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아쉬움에 대한 반론으로 던지는 화두이다. 북한은 그들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지난 9월 9일에는 북한의 정권수습기법임을 맞아 또 다시 5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하여,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5차 핵실험은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한 것 중 가장 강력한 10kt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문제는 안보다

되고 있어, 국제사회에 주는 충격과 우리 안보에 끼치는 위협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현재 언론과 인터넷, SNS 등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장들은 대체로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드는 ‘그 운용 특성상 단거리 미사일 보다는 ICBM 요격 능력이 특화된 MD로, 실질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지, 우리의 안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먼저 미사일은 유효 사정거리를 기준으로 300~1000km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000~2000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3000~5500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50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있으며, 미국의 MD체계는 이에 대해 각각 Patriot, THAAD, SM-3, GMD를 대응시키고 있다. 이런 사실만을 보면 반대 논거는 일용 타당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미래에, 아니 가급적 빠른 시기에 우리는 적어도 미국의 MD체계에 준하는, 아니 그 이상의 자주적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도입의 선후 문제에 대한 논란은 있을지 몰라도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겠다. 둘째,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하게 될 것이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량이 전체 수출량의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해마다 최소 600억불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이 당장 우리에게 경제적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국가 존립과 관련된 문제를 타협해야 될 것인가?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원자재 수입 및 완제품 수출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번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이에 다소의 출혈은 있을지라도 이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고주파 전자파를 발생시키며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소음 공해가 발생할 것이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의 사드 배치 당시에 검증이 이뤄졌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시피 사도 도루(佐藤亨) 교도대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전문가들은 ‘사드 X밴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사드 발전기의 소음문제도 비상시에만 발전기를 가동하고 평상시에는 상업용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미치는 소음도 적다고 한다. 넷째, 향후 사드 배치로 인해 ‘한미미대

북중러의 신냉전 체제가 시작되게 될 것이다’는 것이다. 이는 사드의 핵심구성요소인 ‘X밴드 레이더’의 관측 거리가 수 천Km에 달하여, 중국 및 러시아의 영도이가 레이더의 관측반경 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함으로써 촉발된 논란이다.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라면 신냉전 체제는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우리의 사드 배치로 신냉전 체제가 시작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와 거의 같은 관측반경을 갖는 사드가 일본에 배치되어 운용중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사드와 비슷한 관측 체계를 이미 자국 내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운용 중인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 과정이 결여됐다’는 주장도 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날이 그 방향을 가능하기 힘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감안하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결정은 불가피한 결단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의 대립상에서 무슨 필요가 있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존립할 것인가? 문제는 안보다.

社 說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의혹 철저히 밝혀라

잊게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 모(63) 씨가 비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해 정책자문관의 임기(1년) 만료 후에도 재위촉되지 않은 그는 한 건 설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벌었다가 사법처리된 것이다. 김 씨는 일단 앞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컨설팅 전문가는 김 씨는 지난해 컨설터 측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공시자료에 따르면 해당 컨설터는 특허기술 등을 활용해 사업 영역을 넓혀 왔다. 교량 등 토목공사를 하면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대행, 부동산 개발, 안전진단, 정보통신공사 등 다양한 방향으로 영업 범위를 확대했다. 2011년 81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이 컨설터는 해마다 사세가 꾸준히 확장돼 지난해는 445억 원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검찰은 구속된 김 씨와 돈이 오간 컨설터 시간 연결 고리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전남도 출신 전직 공무원이 회사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지치단체와 밀접한 분야의 사업에 진출하며 영업 실적이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한다면 김 씨는 통제 관급공사 수주 확대를 시도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제 사법 당국은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 씨와 관련된 의혹을 날날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불거진 일이 김 씨 주장대로 정당한 자문료 수수였는지 아니면 불·탈법에 따른 부당한 행위인지를 가려내는 게 먼저다. 만약 김 씨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 씨의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부패 고리까지 연결돼 있는지 파헤치는 것은 당연하다. 전·현직 공직자들이 다수 연루된 전형적인 범죄 행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그 근원부터 드러내 경종을 울려야 하고 엄벌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오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추석 제수용품 마련은 값싼 전통시장에서

추석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야 할 한가위에도 서민들은 걱정이 크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채소와 과일·생선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제수용품 마련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전통시장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이 봇물을 이룬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데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으니 서민들로서는 가게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제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평균 20%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물가당국에 따르면 6~7인 기준 차례상을 차리는데 필요한 비용은 전통시장은 27만221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25만3830원에 비해 6.5% 상승했다.

대형마트 구매 비용은 지난해보다 8% 오른 33만9659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20% 저렴했다. 전통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채소류(21.0%), 육류(15.2%), 수산물류(13.5%), 과일류(8.0%) 등이었다. 매년 치솟는 물가와 국내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의 가게 부담이 더해지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저렴한 데다 넉넉한 인심으로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요즘엔 과거 고질적인 주차난도 많이 해결됐다. 게다가 해마다 전통시장의 입지가 어려워지는 가운데에서도 광주 대인시장의 경우 예술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때를 잘 맞추면 광주 비엔날레와 연계한 행사에도 참여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의 전통시장에 온기가 돌기를 기대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에서 추석 제수용품을 마련할 기쁨과 함께 보다 풍성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無 等 鼓

삼성전자가 배터리 결함이 발견된 '갤럭시노트7'에 대해 전방 리콜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 미래 가치의 특질 등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리포트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이용자들에게 사용 중지를 권고하자, 향후 소비자들의 반응과 구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전격적인 결정은 이유야 뭐가 됐든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한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상거래 시 법률보다 '상도의'(商道義)를 우선 적용하는 신뢰 중심 풍조가 강했다. 예종 때의 일이다. 이 시기에는 사기죄의 경우 장형 100대나 유배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상 이길생과 통역관 김치중은 사기죄로 사형에 처해진다. 왜 그랬을까. 이길생은 왜관에서 일본 무역상과 은 40냥을 금 8냥 5돈으로 맞바꾸는 계약을 했다. 그러나 이길생은 은 40냥 대신 은 18냥과 인삼 50근만을 지불하

고 왜관을 떠나고 만다. 손해를 본 일본 무역상은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고, 이를 형조가 조사하게 된다. 형조는 “이길생을 처장전수(處長傳首, 머리를 베어 돌린)하고 가산을 몰수하며 형장을 붙인 통역관 김치중은 북방 관노도 영구 추방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갈매조 올린다. 그러나 판결문을 읽어 본 예종은 신속주와 상의 끝에, 한·일 무역 관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상도의 확립을 위해 두 명을 모두 참수하는 결정을 내린다. 또 그 취지를 삼포의 왜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사기죄의 형량을 넘어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일 뿐만 아니라 사기를 저지른 주범과 단지 자리를 주선해 준 중범도 최고형을 내렸다는 점에서 상도의 확립에 대한 예종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에 대한 전방 리콜로 1조 원 내외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적 피해는 막대하지만 상도의를 지킨 삼성전자는 다음 모델을 출시할 때 반드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정직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각인시킬 수 있는 호재(?)이기도 하다. /채희중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부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연 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